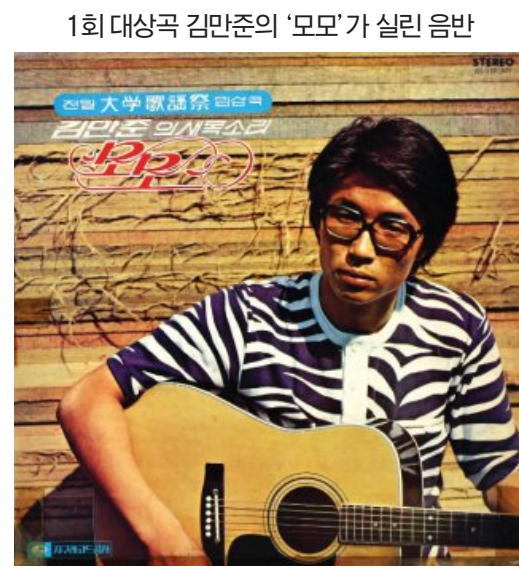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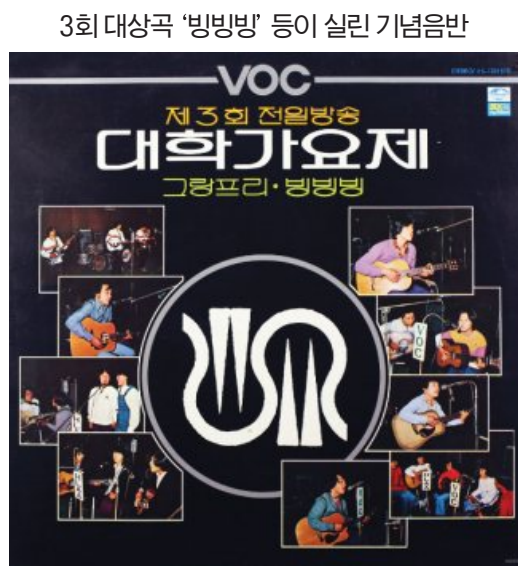




전남대 최유준 교수·방송작가 장상은 '모모는 철부지' 출간 '모모' '소나기' '빙빙빙' 등 전국구 히트곡 뒷이야기 등 담야 신문·인터뷰 등 자료 조사... "로컬 대중문화 잠재력 발휘"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로 돌아본 광주로컬 음악

1971년 전남 지역 최초의 민간방송이 개국했다. 전일방송, 'VOC(Voice Of Chunil)'다. '전일'은 모회사 '전남일보사' (광주일보 전신)에서 따온 것으로 금남로 '전일빌딩'에 신문사와 함께 자리했다.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전일빌딩은 이제, 80년 5월을 기억하는 역사의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 '전일빌딩 245'가 됐다.

(發) 히트곡을 전국으로 발신하며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모모'는 첫 경연의 '메가히트작'이었다. 박철홍이 만들고 김만준이 부른 '모모'는 지구레코드사에서 발매되며 전국을 강타한다. 대학생 가요제 수상곡 중 최초로 MBC TV '금주의 인기가요'에서 5주 연속 1위에 오르고, 1979년에는 청춘스타 전영록과 이미숙이 주연을 맡은 '모모는 철부지'가 개봉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10대 이전까지 살았던 전남대 최유준 교수 역시, 어린시절이 노래를 흥얼거린 기억을 갖고 있다. '전국구 노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음악미학, 문화 연구를 전공한 그는 전남대에 적을 두게 된 2011년부터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를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었다. 최 교수와 문화연구자이자 방송작가 장상은 공동집필한 '모모는 철부지-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 (책과 생활)은 전일가요제를 중심으로 1970년대말에서 1980년대초, 서울의 방송가와 주류 음악계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광주의 로컬 대중음악'을 들여다본다. '로컬음악의 문화적 상상력과 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전남일보 등 당시의 신문 자료와 관련 인물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의 '대중음악현장'을 충실히 복원해냈다.

이제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단 3회'에 그친 경연이었지만, '노래의 힘'은 만만치 않았다. 히트곡 '모모'에 얽힌 뒷 이야기는 눈길을 끈다. 당국의 검열을 고려해 '모모는 말라비틀어진 눈물 자국이다'라는 원곡 가사를, 앨범 제작 당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로 바꿔 녹음한 사실에선 당시 '시대성'을 가늠할 수 있다. 또 노래가 사 중 일부를 '모모'의 모티브가 된 에밀 아자르 소설 '자기 앞의 생' 출판사(문학사상사) 운영자 이영이 책 뒷표지에 쓴 홍보 문단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사이', 5장 '로컬 대중문화의 오래된 미래'를 통해 '카네기홀', '르네상스', '화신다방' 등 충장로 음악 감상실과 정오차의 '바윗돌', 박문욱의 노래들, 백제야학과 '공장의 불빛' 공연 등 광주 로컬 음악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장상은씨가 진행한 충실한 인터뷰는 관련 인물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전일방송 PD출신으로 VOC대학가요제의 산증인인 이상욱 광주북구다문화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하성관과 김종률, 그룹 '로터스' 멤버로 1회 가요제에 참여했던 노양진·이은성, 지역 로컬음악 전문가 주광세 등이.



1978년부터 1980까지 열렸던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모습.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렸던 2회 때는 전남대 중앙단(김종률·박현희·손남승)의 '소나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황순원 동명 소설에 등장한 '소녀의 죽음'에 마음을 뺏긴 김종률의 첫 창작곡으로 그는 같은 해 열린 MBC대학가요제에서 또 다른 자작곡 '영랑과 강진'을 불러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회 대상곡인 김유성 곡 '빙빙빙'은 전국 115개 팀 가운데 '인간의 삶을 풍자하는 가사와 경쾌한 리듬, 기교가 섞이지 않은 음악이 특징' (1980년 4월 26일자 전남일보)이라는 평을 받았고 1981년 KBS '가요톱텐' 연말결선에서 2위에 오른만큼 인기를 모았다.

저자들은 1장 '대학가요의 시대와 광주의 로컬음악', 2장 'MBC 대학가요제: '저녁무렵'부터 '영랑과 강진'까지', 4장 '소나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렸던 2회 때는 전남대 중앙단(김종률·박현희·손남승)의 '소나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황순원 동명 소설에 등장한 '소녀의 죽음'에 마음을 뺏긴 김종률의 첫 창작곡으로 그는 같은 해 열린 MBC대학가요제에서 또 다른 자작곡 '영랑과 강진'을 불러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회 대상곡인 김유성 곡 '빙빙빙'은 전국 115개 팀 가운데 '인간의 삶을 풍자하는 가사와 경쾌한 리듬, 기교가 섞이지 않은 음악이 특징' (1980년 4월 26일자 전남일보)이라는 평을 받았고 1981년 KBS '가요톱텐' 연말결선에서 2위에 오른만큼 인기를 모았다.

저자들은 1장 '대학가요의 시대와 광주의 로컬음악', 2장 'MBC 대학가요제: '저녁무렵'부터 '영랑과 강진'까지', 4장 '소나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발' 전국 히트곡이라는 게 그 시절 어떻게 가능했으며, 왜 그것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여러 우연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주의 DIY음악은 한국에서 로컬 대중문화의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했던 보기 드문 사례다. 그것은 말하자면 로컬 대중문화의 '오래된 미래'다”

이번 책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HK+2강성인문학연구단이 새로운 지역분권시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해 기획한 '트랜스로컬 감성총서' 시리즈로 출간됐다. '감성탐사로부터 K800518호의 영화언어기록' (최혜경·전남대출판문화원), '전남대 비나리페의 문예운동' (정명중·문학들)에 이은 세번째 책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무용과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댄스컴퍼니 Sun & Friends' (대표 선유라)가 기획한 '2021년 현대 춤 차세대 안무가전'이 3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무용가 선유라

이날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의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다양한 현대무용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현대무용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총 다섯개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첫 무대는 정아영의 '정지된 순간'으로 꾸민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의 '순간'을 움직임으로 나타냈다. 이어 이효성·최소영의 '인연의 고리'는 아무리 애가 타도 앞당겨 끄집어 올 수 없고 아무리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가려해도 달아날 수 없는 마음을 이선희 '인연' 음악에 맞춰 선보인다.



댄스컴퍼니 Sun & Friends의 '2021년 현대 춤 차세대 안무가전'이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세 번째 최소영의 '기억의 조각'은 과거는 무의미한 기억의 조각들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흥동리·박창훈은 '시선의 권리'는 침묵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시선을 표현했으며,

마지막 선유라의 무대 '존재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내적 공간 안에서 침묵을 마주하는 시간을 현대적 움직임으로 풀어냈다. 한편, 2019년 창단한 댄스컴퍼니 Sun &

Friends는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로 구성된 단체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또 지역에서 현대무용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무용수들을

위한 무대 마련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무용수들의 역량 개발을 돕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3161-9916.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면면' 고영서 시인 초청 28일 동네책방 숲... 유튜브 생중계

지역 동네책방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릴레이 북토크 '광주면면' 두 번째 프로그램이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광주면면'은 광주문화재단 2021 광주문화자산 구축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역 책방 파종모종이 주축이 돼 레앤프리, 동네책방숲, 사이시옷, 책과생활 등 총 5개의 지역책방과 함께한다.

이날 북 토크는 동네책방 숲에서 이진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영서 시인을 초청해 그의 시집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은 5·18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작가의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수록 작품들은 5·18의 상흔을 현재의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이번 북 토크는 고 시인과 함께 주제독서를 읽은 후 '광주에서는 오월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내는지', '오월 광주의 감수성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장성 출신인 고 시인은 서울예대 극작과 졸업 후 2004년 광주매일 신춘문예에서 '달빛 밟기'로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